



봉우 컬럼

아~ 그리운 기도원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어느 성도 한 분이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며 인사를 한다. 그분은 “오늘 기도원 집회 영상을 보여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것을 보고 첫사랑을 회복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아닌가. 어쩌면 내 마음과 그리 같을까! 나는 3주 연속 기도원 집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며, “기도원에서 예배드린다고 생각하라.”고 성도들을 독려했다. 설교가 하기 싫어서 내가 기도원 영상을 대신할까? 아니다. 그 이유의 으뜸은 과거 우리가 기도원에서 주님을 얼마나 영화롭게 했는지 상기하기 위해서이다. 우리는 2007년까지 기도원에서 세계 목회자 영성 세미나를 개최했다. 그때 참석한 자들 중에는 자기 나라에서 최대 교회를 이끄는 목회자도 있다. 이 위대한 일이 기도원에서 일어났음이 감사하다.

그리고 기도원은 우리의 영혼을 성장시키는 영적 전지훈련장이다. 매 계절마다 우리는 기도원에서 전지훈련을 했고, 이를 통해 우리는 2군, 3군에서 1군으로 믿음을 향상시켰다. 또한 그곳에서 잃어버렸거나 희미해진 첫사랑을 회복했다. 첫사랑을 잃은 자는 야성을 잃은 고양이와 무엇이 다를까.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고 훈련하는 기도원이 좋고 그림다. 기도원은 마치 자동차 정비소와 같다. 자동차가 고장 나면 정비소로 가서 고치듯, 우리의 영혼이 고장나면 우리는 기도원을 찾는다. 집회 때는 하루 6시간씩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는데, 그러면 고장난 육체는 물론이고, 상처 입은 영혼까지 말끔하게 정비가 된다. 어디 그뿐인가. 기도원은 영혼의 주유소로, 말씀을 통해 고갈된 영혼을 채우는 곳이기도 하다. 한재의 보약을 먹는 것처럼 기도와 말씀으로 건강을 되찾아 세상에서 이기게 하는 힘을 주는 곳이 바로 기도원이다.

이런 기도원이 좋고 그림다. 너무 당연해서 감사하지 못했던 기도원 집회, 그러나 앞으로는 그 집회가 더욱 감사하고, 더욱 사모하는 집회로 곧 우리 곁에 다시 올 것이다. 이렇게 좋은 기도원을 주신 것과 이번 기회를 통해 기도원의 귀중함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배우고 익히면 너도 할 수 있다

지난 수요일저녁예배에 우리는 2019년 교단 목회자 세미나 실황을 함께 영상으로 보았다. 목사님은 목회자가 지녀야 할 덕목 및 목회 노하우를 번호를 매겨가며 자세히 가르쳐주셨다.

“첫째, 지도자는 썩은 것을 방지하면 주위를 오염시킨다. 뿌리가 썩으면 나무 전체가 죽는 법이다. 환자에게는 치료가 목적이 아니라 위로가 아니다. 썩은 것을 감싸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썩은 것이 있으면 과감히 도려내야 한다. 둘째, 육체의 기생충을 잡듯이 우리 삶 속에서 대충이란 균을 잡지 못하면 절대 성공할 수 없

도록 명석을 깔아줘야 한다. 연장을 주고 격려하고 코치하는 거다. 여섯째, 조장, 구역장 교육을 잘 시켜야 한다. 교육 부재현상은 후진성을 탈피할 수 없다. 교육은 인격의 질을 높이고 지식을 함양시켜 성장 발전시킨다. 일곱 번째, 마르지 않는 샘은 퍼주는 샘이다. 날마다 퍼먹어야 샘은 마르지 않는다. 지식의 샘이 마르지 않으려면, 책을 봐야 한다. 인간은 보고 들은 것 이상 절대 초월할 수 없다. 배워야 산다. 여덟 번째, 서운함을 버려라. 뭔가 바라기 때문에 서운한 거다. 자식이 잘 되면 기쁜 거지 뭘 더 바라는

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생각으로 나를 다듬어라. 열두 번째, 이타주의가 되려면 이기주의가 되라. 모든 기점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아무리 미사일이 좋더라도 발사대가 없으면 소용없다. 엄마가 튼튼해야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것처럼, 먼저 목사가 능력과 지혜와 건강이 있어야 남을 살린다. 열세 번째, 밑게 보면 다 잡초이고, 곱게 보면 다 꽃이다. 성도들을 밑게 보면 다 원수처럼 보이고, 곱게 보면 다 내 자식처럼 보인다. 세상사 일체유심이다. 법사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고 행동하라. 열네



교육부재현상은 후진성을 탈피할 수 없다 (2019 교단목회자 세미나, 장성 예루살렘기도원)

다. 나는 내 직원들에게 항상 최선을 다하라고 강조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대충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사람을 쓸 때 범을 쫓는 자가 사슴에 관심이 있다, 토끼에 관심이 있다, 그런 자는 절대 쓰면 안 된다. 사도 바울처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행20:24)는 사즉생(死則生)의 자세와 각오로 달려들어야 목적을 이룰 수 있다. 넷째, 혁신은 우리 삶의 질적 향상의 원동력이다. 잘못된 관행이나 습관은 국가, 사회, 기업, 교회, 개인의 암이므로 과감히 도끼로 찍어내야 한다. 이것을 못하면 지도자 자격이 없다. 다섯째, 인재제일주의로 나아가야 한다. 인재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

가? 성도가 잘 되면 족하다. 그게 내 상이다. 뭔가 바라기 때문에 서운하고 그때부터 병이 드는 것이다. 아홉 번째,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 야성을 잃은 고양이는 절대 쥐를 잡지 못한다. 성령의 충만함을 잃은 목사, 전도사, 장로, 집사, 절대 전도하지 않는다. 학벌, 미모, 가문? 다 필요 없다. 신령한 은사가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최고다. 열 번째, 바둑 인생과 장기 인생이 있다. 장기 인생은 다 따먹고 남은 것이 없다. 양 없는 목장을 지키는 신세가 되고 만다. 목사는 바둑 인생이 되어야 한다. 바둑판에 사석조차 잘 키우면 대마를 잡는 법이다. 목회는 죽은 자도 살려 쓰고, 단점 가진 자도 살려 쓰는 것이다. 열한 번째, 유흥을 이기는 것이 인격의 척도다. 절대 성도들에게 추한 것을 보여선 안 된다. 모범이 되어야 한다. 항상 하나

번째, 마음이 가난하면 주위를 가난하게 한다. 마음이 풍요로우면 주위를 풍요롭게 한다. 전염되기 때문이다. 열다섯 번째, 꿈과 희망과 믿음은 우리를 버린 적이 없다. 더더군다나 주님은 우리를 버린 적이 없다. 우리가 꿈과 희망과 믿음을 버렸고, 우리가 예수님을 버린 것이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버린 적이 없다. 과거의 노예가 되지 말고, 다시 시작하여 미래를 향하여 질주하라. 열여섯 번째, 사람을 볼 때 ‘무슨 사연이 있겠지, 무슨 까닭이 있겠지.’ 하는 생각을 가지면 남을 죽이지 않는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하는 생각과 자세로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한다면 우리 교회가 날이 갈수록 창대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보장될 것이다.”

한은택 목사

henry8829@naver.com

수요일예배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30분 KBS88체육관(화곡동)
문의: 02. 533. 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신6:5~15)



자녀를 정상에 오르게 하려거든 가르치라

인생의 내비게이션에 ‘흑인 해방’이라고 찍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에 ‘어떻게 사람을 사고 팔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인생의 목적을 노예해방에 두고 달렸습니다. 그 길은 결코 녹록치 않았습니 다. 21세에 사업에 실패하고, 22세에 변호사 시험에 낙방하고, 26세에 애인의 죽음과 여러 고민으로 병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36세에 국회의원 낙선, 42세에 또다시 낙선, 47세에 부통령 지명전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계속적인 실패 속에서도 낙망하지 않았습니 다. 불굴의 정신으로 다시 일어나 결국 52세에 미합중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는 대통령이 된 후에도 반대세력에 부딪쳐야 했고, 아내가 정신병에 걸리고, 자녀가 죽는 극한 상황에도 처했지만, 그는 마침내 목적인 바, 노예해방의 대업을 이루었습니다. 그가 바로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에이브러햄 링컨입니다. 그렇습니다. 비행기에도, 자동차에도 내비게이션이 있지만, 인생에도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그 내비게이션에 당신이 입력한 대로 삶은 전개될 것입니다. 성공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입력하세요. 이는 곧 인생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30대에는 어떻게 되리라.’, ‘40대에는 내 인생이 이렇게 되리라.’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달려갈 수 있습니다. 목적이 없으면 물 위를 떠다니는 부평초 같은 인생이 되고, 목적은 있으나 달려가지 않으면 그 목적은 허공에 날린 공수표가 되고 말 것입니다. 내비를 찍었어도 액셀을 밟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지 않습니까? 결심만 하는 바보가 되지 말고 시도하고 도전하기 바랍니다.

내 운명은 내가 만든다

물론 가다 보면 힘들겠지요. 누구나 초행은 힘들고, 낯설고, 헤매게 되어 있습니다. 자갈길을 만나 차에 머리를 박는 일도 있고, 굽이굽이 굽은 길을 달려 멀미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자동차에서 내리면 자동차는 멈춰버리듯, 포기하는 순간 그 자리가 인생의 무덤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산다면 말은 달라집니다. 피겨 스케이트의 여왕 김연아 선수나 세계적인 골퍼 타이거우즈 같은 사람이 평탄한 길만 찾아 그 정상에 올랐겠습니까? No! 그들은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았기에 지치지도, 힘들지도 않은 것뿐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인류구원’이라는 목적을 이루고자 험한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희생하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 역시 목회 초년 시절 내비게이션에 ‘세계교구’라고 찍었습니다. 전국과 세계를 교구화 삼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랬더니 철산리에서 한 영혼을 놓고 설교할 때나 인천 마가다락방에서, 송의동 성전에서, 그리고 올림픽공원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달릴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2000년, ‘천 배의 축복’이라는 새 천년의 약속을 받고, 그해 2월 인도네시아 집회를 시작으로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그리고 구소련 권을 포함한 동서유럽까지 전 세계 70여 개국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절대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 다. 눈 덮인 산야요, 물 없 는 사막

이 란 표 현이 너 무 적절할 정도로 힘들었 습니다. 그러나 ‘이루 고야 말리라’는 정신이 있었기에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목적지만 입력한다고 성공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기필코 정신’, ‘마니아 정신’, ‘못 말려 정신’이 우리의 목적을 받쳐줄 때 목적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은 누구나,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쉬자’ 하는 자, 그는 절대 성공에 이를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인생은 만남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누구를 만나느냐가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게 됩니다. 사람이 징검다리가 될 수 있고, 날개가 될 수도 있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비리그(Ivy League)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왜 꼭 그 학교에 들어가려고 하느냐?’고 물으니, 그들의 대답이 좋은 스승은 물론이고, 좋은 인맥을 얻고자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만남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좋은 만

남이 자신을 성공으로 이끌어줄 동아줄 같은 것임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나보다 지혜로운 자, 나보다 많이 아는 자, 나보다 많이 경험한 자를 만나고, 그런 자와 인맥을 형성하기 위해 애쓰는 겁니다. 사기꾼하고 오래 있으면 사기 치게 되어 있습니다. 도박하는 친구를 두면 아무리 결심해도 어느 순간 도박에 손을 담그게 되어 있습니다. 닳은줄은 시간과 정비례하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잠13:20).

헬렌 켈러와 설리반의 만남, 플라톤과 소크라테스의 만남, 처칠과 플레밍의 만남이 그 들 을 인 물 로 , 영



총회장 이초석 목사

웅 으 로 만 든 것입 니다. 나오 미와 룯의 만남, 모세와 여호수아의 만남, 엘리야와 엘리사의 만남, 다윗과 요나단의 만남도 그렇습니다. 뱃사람인 시몬은 예수를 만나 베드로라는 사도가 되었고, 사울은 다메섹을 지날 때 예수님을 만나 바울로 변화되었으며, 이방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만남이 운명을 바꾸고 세상을 바꾼 것입니다. 만남이 계속 연결되면 인맥이 됩니다. 인맥은 무형의 자산이자 금맥이요, 성공의 인프라입니다. 사무엘하 23장에는 다윗의 용사 37인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까지 그 배후에서 그를 돕고 따르던 자들로 다윗의 조력자이며 다윗의 인맥입니다. 요셉이 약관의 나이에 애굽의 총리대신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인맥 형성의 결과입니다. 그는 보디발의 아내의 보복성 위증으로 옥에 들어갔지만, 술관장을 만나 인맥을 쌓았기에 바로의 꿈도 해몽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창40).

인맥 형성의 연결고리는 ‘의리’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 옆의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고,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를 지키십시오. 만남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시지만, 그 관계를 지속시키는 것은 내가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의리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잠10:2),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의리는 죽음을 면케 하느니라”(잠11:4)며 사람이라면 자고로 의리가 있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사울에 대한 다윗의 의리, 요나단과 다윗의 의리, 시어머니를 끝까지 봉양한 룯의 의리, 예수님의 어머니를 마지막까지 섬긴 요한의 의리... 그리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며 모진 고통을 참아내고 마침내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의 의리를 본받아야 합니다.

인맥은 성공의 인프라다

마가복음 2장에는 네 명의 친구들이 한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 나오는 구절이 있는데, 저는 이 구절을 굉장히 좋아하고, 설교에 자주 인용합니다. 네 명의 친구들은 중풍 맞은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 곁으로 가려했지만 사람이 너무 많아서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이 계신 집의 지붕을 뜯어내고 그 구멍으로 중풍병자인 친구를 매달아 예수님 앞에 내려왔습니다. 정말 의리의 사나이들입니다. 어떻게든 친구를 살려보겠다는 생각으로 뚝뚝 뚫쳐 친구로서의 도리를 다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중풍 맞은 친구도 건강할 때는 의리가 있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맥을 형성할 수 있었겠지요. 여러분, 생사화복이 내 손 안에 있듯, 성공과 실패도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필요’의 어머니는 ‘기필코’라는 자식을 낳기 때문에, 그 정신만 있다면 당신은 성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절대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은 혼자 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고로 만남을 중요시합니다. 좋은 만남이 지속되면 좋은 인맥이 되고, 그것은 지갑 속의 현찰처럼 당신을 편하고 이롭게 할 것이며, 성공의 징검다리가 되어 건너지 못할 강을 건너게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예수중심교단의 젊은이들이 이 말씀을 실천하여 이 나라 각 분야에 수장이 되기를, 세계의 머리가 되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잠11:30). 할렐루야!

:: 객원컬럼 ::

:: 책을 펴다 ::

이 여인의 마음을 아는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보면 욕이 절규했던 것처럼, 앞으로 가도, 옆으로 가도, 뒤로 가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절망하고 답답할 때가 많다. 그러나 어차피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보이지 않는 천국을 향하여 이 길을 나선 사람들이다.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으며, 손에 잡히지 않는다 하여도 우리가 처음 받은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며 천국을 향해 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엘가나의 아내 한나는 남부러울 것이 없는 명문가의 안주인이었다. 그러나 다 가졌어도 딱 한 가지, 아이를 낳을 수 없었다. 남편 엘가나의 총애를 받는 귀부인이었지만, 하나님이 성태치 못하게 하신 것이다. 고대 부족국가 시절, 자녀를 생산치 못하는 여인은 존재 의의가 없었다. ‘젊은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종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시127:4~5)라고 하지 않던가. 아무리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재산이 넘쳐나면 무슨 소용인가? 무자하니 대적 브닌나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당했다. 격동하고 번민하던 한나는 여호와와의 전에 올라 통곡으로 기도하며 서원한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만일 저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저를 생각하시고 잊지 아니하셔서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한나의 고통은 표면적으로는 자식이 없었었지만, 더 근본적으로 한나가 괴로

워했던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슬픔 때문이었다. 만일 한나의 기도가 오직 자녀 얻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시원찮은 엘리 제사장의 마지못한 축복기도에 그처럼 반응할 수 없었을 것이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고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는 엘리 제사장의 기도에도 한나의 반응을 보라. 당장 어떤 응답을 받은 것도, 손에 잡은 것도 아니건만, 한나는 즉시 금식을 끝내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었다고 기록되어있다(삼상1:18).

사무엘상 2장은 하나님의 응답으로 얻은 아들 사무엘을 짓을 땀 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미로 가득하다. 한나가 그토록 황홀한 찬미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식을 얻은 기쁨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에도 응답하셨다는 사실이었다. 자식만이 목적이었다면 아무리 서원했더라도 눈에 밟히는 자식, 이제 겨우 짓을 땀 핏덩이를 어찌 떼어놓을 수 있었겠는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다. 한나의 찬양이 날마다 우리 삶 속에 울려 퍼져야 마땅하다. 눈에 보이는 일상에 일희일비하는 냄비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의리로 충만한 기쁨의 삶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 한분으로 족한 삶 말이다.

Henry Han

:: 세상을 보는 창 ::

꼭 필요한 광야훈련

뉴노멀시대로 변화되어가는 길목에서 우리는 불안한 마음으로 가득하다.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이기도 하고, 당장 우리의 건강과 일터와 자유를 잃어버릴까봐 긴장하며 하루하루를 보낸다. 마치 광야에 서있는 느낌이 든다.

광야는 우리에게 어떤 곳인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곳이다. 반석에서 나오는 물과 만나와 메추라기뿐만 먹고 살 수 있는 곳이다. 오직 100%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만 살아내야 하는 곳이 광야이다.

또 광야는 불순종을 순종으로, 불평을 감사로 훈련하는 장소이다. 하나님은 노예 근성이 가득하고 불순종과 불평이 몸에 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해주시고,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며, 순종훈련과 감사훈련을 시키셨다.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삶이요, 범사에 감사하는 태도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광야는 내 자아가 깨어지는 곳이다. 골리앗과 싸워 승리하고 승승장구했던 다윗도 13년 동안 사울 왕에게 쫓기며 도망해야 했던 광야 인생이 있었

다. 그런데 이 시간은 다윗의 자아가 깨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인격으로 빚어져 가는 시간이었다.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을 결코 죽이지 않았고, 소외되고 버림받은 인생들과 함께 지내며 친구가 되어 주었다. 자신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문제를 바라보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를 배우는 시간이 광야였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통치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었다.

우리 목사님은 눈 덮인 산야, 물 없는 사막을 지나왔다고 늘 말씀하신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눈물 없이 갈 수 없는 광야를 통과하셨기에 세계적인 전도자가 되셨고, 지금의 예수중심교단을 이루신 것이 아닌가.

우리 인생에도 반드시 광야 훈련이 있다. 그러나 광야의 시간은 하나님만을 신뢰하도록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며 불완전한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성숙시키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다.

광야에서 빨리 나오는 방법은 순종과 감사다. 그렇지 않으면 일주일이 40년이 됨을 알자.

이정금 전도사

전도의 파장

1858년 보스톤에 있는 한 주일학교 교사 킴벌(Kimball)은 구둣방에서 일하는 자기 반 학생을 방문하여 그에게 성경공부를 시켰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였고, 그리고 범사에 열심이었다. 그 가난한 학생이 후일 세계적인 목사가 된 무디(D. L. Moody)다.

21년 후, 무디는 런던에서 전도집회를 열었는데, 거기 참석했던 메이어(F. Meyer)가 주님을 영접하여 목사가 되었다. 그리고 메이어 목사가 미국에서 집회를 할 때 채프만(J. Chapman)이 회심했고, YMCA에서 일했던 채프만은 야구선수인 썬데이(Billy Sunday)에게 성경을 가르쳐 전도사가 되게 했다. 썬데이는 강사로 초빙되어 집회를 가졌는데, 그때 당시 열두 살짜리 소년 한 명이 결신을 했다. 그 소년이 전 세계 수백만 명에게 복음을 전한 대부흥사 빌리 그레함(Billy Graham)이다.

전도는 이처럼 엄청난 파장을 가지고 있다. 마치 도미노 현상처럼 전도는 큰 파장을 타고 다닌다. 그러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한다. 만일 당신으로 인해 복음의 파장이 끊기면 당신은 나중에 하나님께 물음을 받을 것이 분명하다.

당신이 씨를 뿌리는 자가 되라. 그러면 누군가가 물을 줄 것이고, 거두는 이가 반드시 있을 것이니 열심히 씨를 뿌리는 복음 전파에 박차를 가하라. 당신이 뿌린 씨가 나중에 거목으로 자랄 수도 있음을 알고 어디든 어느 때든 복음의 씨를 뿌리는 부지런한 농부가 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딤후4:2).

이초석 목사 저서 ‘사랑이 무르익어아 결혼에 골인한다’ 중에서



바위가 부서져 모래가 되면 거센 파도를 품을 수 있다

:: 낮은 울타리 ::

항상 최고의 것으로

최근 제가 맡은 팀에 새신자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나오지 않을 것 같던 친구가 나와 예배와 모임에 참석하는 모습을 보니 ‘하나님이 이번에 이 친구를 확실히 만나주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온 지 2주 만에 그 친구에게 큰 어려움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이 발생하며 친구는 지금까지 노력해서 얻은 것들을 다 잃었고, 교회에도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분명 이 친구가 교회에 나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는데, 믿음이 생기기도 전에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마음 아픈 일이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은 한 사건을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제가 대학교에 떨어지고 다시 입시를 준비하며 아르바이트를 하던 때의 일입니다. 그날따라 일도 힘들고, 미래에 대한 막연함 때문에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가려면 버스를 타야 했는데, 마침 바로 옆으로 버스가 지나가면서 신호등에 딱 걸리게 되었습니다. 조금만 뛰면 버스를 탈 수 있을 것 같아서 ‘진짜 하나님, 오늘 되는 일도 하나 없었는데, 저것이

라도 제발 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며 뛰었습니다. 그런데 코앞에서 버스가 떠나고 말았습니다. 저 버스를 고작 1초도 잡아 놓으시지 않은 하나님이 밟고, 저런 사소한 것도 마음대로 안 되나 싶어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채 1분도 되지 않아 같은 번호의 버스가 오는 게 아니니까? 게다가 그 버스는 퇴근 시간에 절대 볼 수 없는 텅텅 빈 버스였습니다.

저는 비록 바로 앞에 있는 버스를 타길 원했지만 항상 최고의 것을 주시는 주님은 제가 더 편하게 갈 수 있는 빈 버스를 준비해주셨습니다. 이 일이 생각나면서 이 친구의 고난이 하나님을 더욱 강하게 경험하기 위한 과정인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도 후 친구와 대화를 하는데 놀랍게도 친구가 저에게 “예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려고요.”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가장 최고의 길로 그 친구를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당장은 이해하지 못할 고난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린다면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최고의 것으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장수정

고난 중의 감사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감동을 주는 사건이 얼마 전 뉴스에 소개되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촉촉이 적셨습니다.

프랑스에서 93세 된 할아버지가 코로나에 걸려서 병원에 이송되었고, 그리고 24시간 동안 고압산소를 공급받는 치료를 며칠 동안이나 받고 나서 93세임에도 완치되었다고 아주 떠들썩하니 뉴스에 소개되었습니다. 물론 이 일만 해도 큰 경사이지만, 그것보다 더 눈시울을 적시게 하고 듣는 이들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회개의 무릎을 꿇게 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퇴원할 때 의사가 내민 청구서를 보시고 할아버지께서 흘리신 눈물 때문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할아버지, 퇴원 축하드립니다.”라고 인사를 하면서 꽤나 큰 금액의 의료계산서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백만 원이 훨씬 넘는 고액의 치료비를 청구 받은 이 할아버지는 그 청구서를 손

에 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자 의사 선생님은 너무 죄송스러워 하면서 “많은 의료비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세요. 어떻게 잘 해결되는 길이 있을 겁니다.” 하고 위로를 해드렸는데, 할아버지는 “아닙니다. 나는 이 치료비를 지불할 만한 넉넉한 돈은 있습니다. 지불해야 할 치료비 때문에 내가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며칠 동안 24시간 고압산소를 공급받는 치료를 받고 이제 다 나아서 퇴원하면서 백만 원이 넘는 많은 치료비를 내는데, 93년 동안 나는 주님께 공짜로 산소를 공급받았네요.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 많은 빚을 졌어요. 그래서 내가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고 하자 의사도 손을 잡고 같이 울었다는 참 따뜻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습니다. 너무 크고 넓고 깊어서 우리는 그것을 잊고 살고 있습니다. 감사는커녕 당연한 듯 누리고 있습니다. 가끔 우리를 고난 중에 두시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려는 하

나님의 섭리가 아닐까요? 그래서 고난이 때론 유익한 것입니다. 진짜 감사는 고난 중에 있고, 진짜 은혜를 아는 때는 절박할 때입니다. 인생의 고난 속에 하나님의 음성 있고, 치료가 있고, 기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끔 내 영적 건강상태를 체크해야 합니다. 우리가 건강 체크를 하기 위해 내시경을 통해 장기의 상태를 확인하고, 암을 유발하는 용종을 제거하기도 하며,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기도 하듯이 우리의 영도 내시경검사가 필요합니다. 내시경검사를 통해 마음 벽에 붙어있는 세상 것들과 우상의 조각들을 도려냄으로 영적 암에 걸리지 않도록 치료해야 합니다. 내 안에 세상 것들과 우상이 가득 차 막혀 있으면 비우는 작업이 만만치 않지만, 그러나 영적 건강을 위해 기도의 길을 뚫는 회개의 작업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됩니다.

서동경예수중심교회 김경숙 목사

:: 성도간증 ::

기도가 답입니다

저는 2013년 1월에 총회장 이초석 목사님으로부터 장애인 안내부장으로 명받았습니다. 당시 장애인 회원은 17명이었고, 휠체어 4대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년 장애인 위안잔치를 해야 한다는 어느 장로님의 말씀에, 비용을 계산해보니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초석 목사님을 찾아가서 전후 사정을 말씀드리니 목사님께서는 가난한 사람에게 강제로 돈을 내라고 하지 말고, 후원회를 결성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 후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매일 3시간 기도했습니다. 토요일마다 대방교육관 기도회에 나가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4년, 갑자기 좌측 다리 관절에 문제가 생겨 제대로 걸을 수가 없고 절룩절룩 거렸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미 경험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34년 전에도 입과 눈이 돌아가 말을 못하던 반신불수 중풍을 고침 받은 경험 말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배운 대로 매일 귀신을 쫓고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고쳐달라고 한 땀한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남몰래 때를 쓴 지 2개월 만에 완전히 절룩거리던 다리가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지금은 휠체어 21대, 회원 200명으로 늘어나 장애인 1교구, 2교구로 부흥되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집회에

현금을 드리고, 매주일 장애인과 88체육관 직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등 물질적으로도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렘33:3)는 말씀처럼 기도가 인생의 답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풍병에서 나온 한 번의 경험이 저에게 교훈이 되어 무엇이든 기도하고, 귀신을 쫓으면 된다는 확실한 믿음을 갖게 했습니다. 앞으로도 제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며 여생을 살겠습니다. 잘 가르쳐 주신 이초석 목사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장애인 안내부장 김수현 장로

:: 나도 건강할 수 있다 ::

어젯밤도 안녕히 주무셨나요?

‘잠이 보약이다’라는 말처럼, 숙면은 생기를 되찾기 위한 가장 좋은 영양제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건강식품을 챙겨 먹어도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 늘 피곤할 수밖에 없다. 성인의 적절한 수면은 7~9시간이다. 더 짧아도, 더 길어도 건강에 별로 좋지 않다. 그런데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잠이 부족하다. 야근하는 직장인, 수험생, 그리고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인터넷 사용 급증, 커피나 차 등 카페인 섭취 증가, 신체 활동 부족 등 사람들의 수면이 부족한 이유는 다양하다.

수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수면 부족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비만, 심혈관질환, ADHD(주의력 결핍 과다행동장애), 우울증, 교통사고 등이 있다. 밤을 새워서 공부하는

경우, 뇌의 해마가 활성화되지 않아 충분히 잠을 잤을 때보다 기억저장능력이 40% 정도 감소된다. 매일 4시간씩 자는 경우에는 성호르몬 등을 담당하는 생식계의 노화가 앞당겨지며 NK세포의 활동량이 무려 70%나 감소한다. NK세포는 자연살해세포라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나 암세포를 직접 죽이는 면역세포이다. 면역력과 관련되어 대장암, 유방암, 전립선암이 수면부족과 관련이 깊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면 불면증 극복을 위해서는 어떤 생활지침을 지켜야 할까? 우선 매일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며 카페인, 니코틴, 알코올, 정신자극제 등 중추신경계를 활성화시키는 물질을 중단해야 한다. 낮 동안 적절하게 활동하며 저녁식사 후 텔레비전,

스마트폰, 게임 등 자극을 줄이고 독서처럼 적당한 정신적인 피로를 쌓을 수 있는 활동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야식은 먹지 않고 적당한 스트레칭과 근육 이완이 가능한 운동을 하거나 잠들기 전에 20분 정도 따뜻한 물로 목욕하고 편안한 수면 환경을 유지하도록 하자. 잠을 그제 다음날 하루의 컨디션을 좌우하는 정도로만 치부하지 말고 인간의 생체 리듬이 인생의 3분의 1을 자도록 설계된 것은 분명 이유가 있다. 수면은 질병이나 노화속도, 기분, 사고(思考)와도 깊은 연관이 있다. 하루 이를 정도는 상관없지만 수면장애 시 간이 길어질수록 삶의 질 또한 달라질 수 있다.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시127:2).

Dr. 조희경 집사

신념 or 생각의 나태

신념이라는 단어는 대개 좋은 의미로 쓰인다. 굳게 믿는 마음, 변하지 않는 생각과 가치 등을 표현하는 단어로, 한 사람이나 단체의 일관된 생각과 믿음을 좋게 표현하는데 쓰이곤 한다.

일반적으로는 개인이나 단체나 신념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 생각과 가치를 남에게 공유하고 실천하며 그것은 더욱 아름다워지고 발전해 나간다.

하지만 때론 그 신념이 바뀌고 변해야 할 때가 있다. 상황과 환경이 변했다면 말이다. 이미 주변 상황이 모두 바뀌고 예전에 가졌던 신념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그 신념을 고집하는 일은 어리석은 일이다. 이를 보고 한 유명한 철학자는 ‘신념을 가진 자를 달리 말하면 생각이 정지되어 있다는 것일 수 있다. 정신의 나태함이 신념을 만든다.’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남들과 대중이 동조하고 따르는 생각과 가치를 만들고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먼저 이해해야 하고, 내가 가진 지식과 생각의 깊이를 늘려 나가야 한다. 그리고 변화하는 흐름을 내 생각 속에 반영하기 위해 부지런히 공부해야 한다.

내가 부지런하지 못하고 게을러 나를 개선하고 업그레이드해나가지 못한다면 내가 가진 생각과 가치는 더 이상 아름다운 신념이 아니다. 오히려 요즘 사회적인 문제 중 하나로 치부되는 썩은 소리를 듣기 십상이다.

진리가 아닌 이상 세상 모든 지식과 가치는 변하고 발전한다. 그러므로 목사님 말씀처럼 성장하고 발전해야지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 게으르고 나태한 생각을 내어 쫓고 무던 철 연장 날을 부지런히 갈고 닦아, 지혜와 통찰로 무장한 성숙한 성도가 되자.

장명훈 집사
jjoshua@hanmail.net

